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시대와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MCN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등과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소속사)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기초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배우 등을 양성해 연예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교육,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MCN은 위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크리에이터 등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고 크리에이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MCN과 크리에이터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MCN과 크리에이터 등은 전속계약과 유사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등을 일부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다. 크리에이터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 등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제작된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유치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MCN의 전반적인 역할에 관해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금력과 제작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

MCN 회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studio), 소속 연예인 또는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콜라보), 그 외에 저작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MCN이 소재 선정이나 공동으로 방송을 진행할 크리에이터 등의 섭외, 영상편집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MCN들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신규 콘텐츠)을 제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내용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분쟁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등과 MCN 간에도 가입계약 해지, 수익 배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 전속계약에 적용되던 법리들이 일용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채널의 소유권 등 크리에이터 등과 관련해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향한 외침... "철강산업 살려"



기지수첩 이 승 웅 (산업부)

철강산업은 단순한 전통 제조업이 아닌 국가 산업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산업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굳건한 생산 기반과 경쟁력을 가진 철강산업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였던 철강산업이 최근 위축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세, 글로벌 공급과잉 위협,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EU의 탄소국립을 내세운 무역장벽 등이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중시하는 규제가

지 강화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설비폐쇄와 가동중단을 선언했고, 중소 철강기업들은 줄줄이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수익성에 더욱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철강업계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지만,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철강산업 부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포항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경상북도 그린 철강 산업 육성 등이 전부다. 이는 추상적인 발언에 불과해 철강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철강 산업은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S0S를 외친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

진선을 통해 탈탄소화를 주도하면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철강재다. 철강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통신장비에도 필수불가결한 소재를 공급하는 현재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힘들어질 경우 주변 산업들 역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등의 산업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 위기극복이나 보호를 넘어, 경쟁여건 정상화, 비용 경쟁력 향상, 저탄소 투자 지원 등 미래 한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을 위한 지지와 구체적 지원방향을 담아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한번 주저앉은 산업은 다시 재건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9일 (음 5월 14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부동산에서 좋은 일로 연락이 온다. 48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잊지 마라. 60년생 환상을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72년생 무관심이 오히려 좋은 결과. 8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때가 무르익었다

소 37년생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4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 61년생 가까운 사이여도 예의를 지켜라. 73년생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85년생 영켜있던 실타래가 잘 풀린다.

호랑이 38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0년생 재물이 많아서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 62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74년생 향기 없는 꽃에 취해 지갑이 털린다. 86년생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운 것도 없다.

토끼 39년생 열심히 노력하니 운도 저절로 따라온다. 51년생 뒷사람이 조인이 늘 도움을 준다. 6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라. 75년생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판단하라. 87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변명만 보지 마라.

말 40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52년생 부족함이 있어도 떠들지 말라. 64년생 머리가 맑으니 외국어 공부에 시작하라. 76년생 집안 유품은 간직하고 버리는 것은 차후에. 88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마음이 불편

뱀 41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주의. 5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5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큰 세상을 모른다. 77년생 술로 인해 아저들은 말도 기억을 못 한다. 89년생 오랜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된다.

양 4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하루. 5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6년생 힘든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78년생 비늘도독이 소도독이니 주의 할 수밖에. 90년생 신선한 먹을거리를 선물 받는다.

양 43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55년생 서슴없이 행동하다가 이성 문제로 구설 생길 듯. 67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한다. 79년생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 통증 유발. 91년생 걱정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행동.

원숭이 44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 5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노력. 68년생 친구의 불행을 방관하려는가. 80년생 이성문제도 갈팡질팡 마음이 어지럽다. 92년생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항상 흐뭇하다.

닭 45년생 의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57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69년생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81년생 잠시 온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93년생 매사 부드럽게 상대를 포용하라.

개 46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한결 수월하다. 5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70년생 신용 있는 인맥으로 좋은 일을 찾게 된다. 82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잃는다. 94년생 뒤늦게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게 온다.

돼지 47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진행해도 무방. 5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 71년생 무슨 일든 형편에 맞춰서. 8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95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살처럼 차갑다.

김상회의四季 신들의 세상

명심보감의한구절을 인용하다보니 '동약성제'라는 신명이나온다. 동약성제(東岳聖帝)는 중국 도교에서 숭배하는 신선으로서 중국의 유명한 다섯 산인 오악(五岳)중 동쪽의 태산(泰山)을 관장하는 신을 뜻한다.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며, 동약성제는 이 산의 수호신으로서 별(星)로, 인간의 선악을 감시하고 복과 화를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약성제가 있다면 서악 북악 남악 등에도 성제라 불리는 신선들이 거하는 것이며 특히나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산신 신앙이 일반적인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신들은 그 수도 많고 반드시 선신(善神)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로마신화에도 보자면 바람피우고 질투하며 거의 인간의 성과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오욕칠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신들이 대부분이다. 오감과 오욕을 지니고 있되 능력이 인간 이상이며 수명도 상대적으로 엄청 길다는 그 차이다. 그에 비해 동북아권인 우리나라나 중국 신들의 경우, 신들은 고상하고 엄정하여 청정하지 않은 것들을 몹시도 꺼리며 선함과 도의(道義)를 좋아하고 거짓되거나 탐욕을 부리면 복을 빼앗고 재앙을 내린다는 권선징악 적 의미가 강하다.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인정에 따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신들에게 구하면 그 정성에 감응하여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고 힘을 준다는 믿음이다. 신은 성스럽고 초자연다운 존재로서 인간이 기대하는 초월적 능력을 또 다른 의미로는 에너지의 응결체 힘의 에너지이니 초월적 존재들은 저 높은 하늘에 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하루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할인도서

7	2	9	8	6	1	2	9	
8	1	9	2	5	2	6	7	8
2	6	8	1	9	7	8	2	9
9	7	4	8	1	8	9	6	2
6	8	1	7	2	9	5	8	2
2	9	8	2	6	5	8	1	7
9	8	6	9	2	2	2	8	1
8	9	2	6	2	1	7	9	8
1	2	7	9	8	8	2	9	6

7	9	2	8	1	2	9	6	8
6	8	1	7	9	9	2	8	2
2	9	8	6	2	8	7	1	9
2	7	6	2	8	9	8	1	7
9	2	9	8	6	1	2	7	8
8	1	8	9	7	2	9	2	6
8	6	2	9	8	1	2	7	8
9	2	7	1	8	6	8	9	2
1	8	9	2	7	6	8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